



인터넷 사진에 나타난 간호사 이미지

박선아¹ · 백민정² · 성민경² · 장혜지² · 정민주² · 허주희²

¹강릉원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²강릉원주대학교 간호학과 학부생

Nurses' Image Portrayed in the Internet Photographs

Park, Sunah¹ · Baek, Minjeong² · Seong, Mingyeong² · Jang, Hyeji² · Jeong, Minju² · Heo, Juhui²

¹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Wonju; ²Under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Nursing,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Wonju,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mage of nurses portrayed in the internet photographs. **Methods:** A total of 184 photographs were extracted through the Google portal site using a search term, 'nurse'. Based on the findings of previous studies, a content analysis was conducted with three categories: appearance characteristics, photographic scene, and photographic source. **Results:** The result revealed that in the photos of appearance characteristics, 237 (98.3%) out of 241 nurses had a normal or less frame, 235 (97.5%) were well-groomed, and 103 (42.7%) wore pants. In addition, 51 (21.2%) wore a cap (21.2%) and 12.0% were male. In the photographic scene, 69 (37.5%) portrayed nursing activities and 36 (19.6%) suggestiveness. In the suggestive photos, all of nurses were female ($\chi^2=7.63, p=.021$) and they were more likely to have small frames ($\chi^2=48.40, p<.001$) and wear caps ($\chi^2=113.54, p<.001$) and skirts ($\chi^2=39.96, p<.001$). **Conclusion:** This study showed that the photographs of the nurses wearing a cap and expressing the nurse as a sexual object still appeared. There is a need for a systematic image enhancement strategy so that actual images of nurses can be projected on the internet photographs.

Key Words: Internet, Image, Nurses, Photographs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이미지는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 대상에 대하여 가지는 신념, 태도, 인상의 총체이다[1]. 간호사는 전통적으로 '힘든 직업', '의사의 보조자', '여성의 직업' 등 독립성과 자율성이 부족한 여성적이고 수동적인 이미지로 인식되어 왔다[2]. 그러나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간호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간호사가 미래의 유망직종 중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간호학과에 입학하는 남학생의 수가 2001년 323명에서

2015년에는 3,800명으로 2000년대에 이르러 남학생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3],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간호사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나 인식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부정적인 인식도 공존하고 있다[4]. 1990년대 간호사 이미지 연구에 의하면[5], '자녀가 있다면, 간호사를 시키고 싶다'에 대해 가장 낮은 공정을 보였지만 2006년 대한간호협회에서 일반인 1,0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가족 중에 간호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82.9%로 나타났으며 국민 10명 중 9명이 간호사에

주요어: 인터넷, 이미지, 간호사, 사진

Corresponding author: Park, Sunah (<https://orcid.org/0000-0001-9164-997X>)

Department of Nursing,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W5-301, 150 Namwon-ro, Heungeop-myeon, Wonju-si, Gangwon-do 26403, Korea

Tel: +82-33-760-8644 Fax: +82-33-760-8641 E-mail: suna73@gwnu.ac.kr

Received: 5 April 2018 Revised: 2 May 2018 Accepted: 6 May 2018

대해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대[6]. 그러나 동시에 응답자의 96.1%는 간호사에 대해 스트레스가 많고 힘든 직업으로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반인, 간호사, 의사, 간호조무사, 환자, 보호자 등 다양한 대상자 1,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호사에 대한 인식연구에서도 사람들은 간호사에 대해 ‘깨끗함’, ‘돌봄’, ‘신속함’, ‘책임감’, ‘교육을 잘 받음’의 항목을 높게 평가한 반면 ‘자신의 주장을 분명하게 말함’과 ‘선두적임’의 이미지에 대해서는 가장 낮게 평가하여 간호사의 전통적인 순종적이고 수동적인 이미지가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대[4]. 이러한 간호사에 대한 고정관념은 간호사 자신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주어 업무 만족도를 저하시키고 이직의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곧 간호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7].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는 간호사와의 직접 경험, TV 등의 대중매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8]. 그러나 과거 간호사와의 직접적인 경험과 관련된 내용이 대중매체에서 적게 다루어져 대중에게 전달될 기회가 적었으며[9], 대부분은 간호사를 성적인 모습, 종속적이고 수동적인 모습 등의 여성적인 모습으로 묘사하였다[10]. 최근 유튜브 동영상과 어린이 동화책을 분석한 간호사 이미지 연구[11,12]에서도 유튜브 동영상에서 간호사는 성적 대상, 어리석고 무능함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어린이 동화책에서는 최근에 발행된 동화책조차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간호사를 의사에 종속된 이미지와 캡을 쓰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하였다. 이는 간호교육의 지속적인 학문적, 직업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중매체에서는 간호사의 다양하고 확대된 역할과 실제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제공이 어떤 대상에 대한 이미지 형성과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점을 고려할 때[13], 다양한 대중매체에서 간호사가 어떻게 투영되어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에 따른 이미지 개선 전략과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진행된 대중매체에 나타난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선행연구는 국내의 경우 한국 의학드라마[4], 병원잡지[14], 신문[15] 등을 분석한 연구가 있으며, 국외는 인터넷[10], 인터넷 축하카드[16], 유튜브[11], 초등학교 그림책[12] 등의 연구가 있다.

현대사회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과거에 비해 쉽고 빠르게 인터넷 정보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인터넷 이용자는 만3세 이상 인구 10명 중 8명(88.3%)으로 전 세계에서 4위를 차지하

고 있다[17]. 인터넷은 사진, 음악, 영화, 뉴스, 방송, 동영상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으나, 인터넷 매체가 갖는 온라인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러한 콘텐츠에 대한 규제가 어려우며[18], 이로 인해 인터넷 정보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질적으로 수준 이하의 정보들이 반복 재생되는 문제점이 있다. 더욱이 스마트 기기를 통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인터넷에서 간호사와 관련된 정보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사진이나 그림은 글보다 시각적인 효과가 커서 대중들의 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의 다양한 정보 중에서 간호사와 관련된 사진 분석을 통해 간호사 이미지를 확인하고 추후 간호사 이미지 제고 및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 사진에서 간호사가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사관련 인터넷 사진을 간호사의 외적특성, 사진장면, 사진출처로 분석한다.
- 2) 사진장면에 따른 간호사의 외적특성과 사진출처의 차이를 알아본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인터넷에 나타난 간호사의 이미지를 알아보기 위해 간호사와 관련된 사진을 분석한 내용분석 연구이다.

2. 분석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구글(google) 포털사이트 이미지 중 간호사와 관련된 사진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중에서 구글을 선택한 이유는 구글이 전 세계 인터넷 검색 이용의 72.5%를 차지하여 이용 점유율이 1위이며[18],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 검색 이용으로 구글이 80.5%를 차지하고 있어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20].

자료수집은 2017년 4월 5일 22시에 이루어졌으며 구글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 ‘간호사’를 입력하여 총 804개의 간호사 사진을 추출하였다. 이 중에서 사람이 등장하지 않은 사진, 일러스트 및 캐릭터 사진, 증명사진, 셀프카메라 사진 252개는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총 552개 간호사 사진 중에서 분석에 사용된 사진은 184개이며, 사진 선정은 인터넷에 나열된 순서에서

최초 3번째 사진에서 시작하여 매 3번째 사진을 샘플로 추출하였다.

3. 분석유목 및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유목은 인터넷에 나타난 간호사 이미지를 분석한 Kalish 등[10], 의학드라마에 비춰진 간호사 모습을 분석한 김정은 등[21]과 염영희 등[4]의 연구를 토대로, 간호사 외적특성, 사진장면, 사진출처의 3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분석유목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총 9회의 연구자 회의와 간호학과 교수 4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통해 분석유목을 연구목적과 대상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분석유목의 구체적인 세부항목과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적특성

간호사의 외적특성은 체격, 용모, 의상, 표정, 캡 착용, 성별의 총 6개 세부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체격은 구체적으로 '날씬하다', '보통이다', '뚱뚱하다'로 구분하였으며 용모는 '청결하다', '청결하지 못하다'로 구분하였다. 의상은 '치마', '바지', '기타'로 구분하였으며 '기타'는 상반신 사진, 감염관리복, 속옷과 같이 치마와 바지에 해당하지 않거나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였다. 표정은 '미소와 '무표정', '기타'로 구분하였고 '기타'는 유혹하려는 표정 및 찡그림, 화난 표정을 말한다. 캡 착용은 '유', '무'로 구분하였다. 성별은 '여성'과 '남성'으로 분류하였다.

2) 사진장면

사진장면은 '간호활동', '비전문성', '선정성' 장면인 3개 세부항목으로 구성하였다. '간호활동'은 간호사의 역할과 활동 장면이 나타난 사진으로 '전문적인 역할'과 '단순 역할'로 구분하였다. '전문적인 역할'은 '전문적인 간호술 수행', '교육자 역할', '연구 및 학술활동', '집단회의' 등을 포함한 사진이며, '단순 역할'은 간호사의 업무가 보조적이거나 단순한 행위로 '진료보조', '환자 이송', '침상주변 정리', '카트 밀기' 등을 포함한 사진이다. '비전문성' 장면은 간호사 역할이나 활동이 나타나지 않은 사진으로 단순히 포즈를 취하는 사진이 이에 해당된다. '선정성' 장면은 간호사를 성적인 대상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제8조 1항에 따라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를 포함하였다.

3) 사진출처

사진 출처는 '신문기사 및 뉴스', '커뮤니티', '소셜 네트워크서

비스', '병원', '협회', '기타'로 구분하였다. '소셜 네트워크서비스'는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등을 말하며 '커뮤니티'는 개인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소모임 등을 말한다. '기타'에는 쇼핑몰과 백과사전, 사진모음집 사이트 등이 포함된다.

4) 코더 간 신뢰도 측정

코더 간 신뢰도 확보를 위해 코더들은 분석유목과 세부항목의 조작적 정의 및 코딩방법에 대해 사전 검토와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코딩 후 코더 간 불일치하는 사진의 경우 일치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코딩과 논의를 하였다. 코더 간 신뢰도는 전체 샘플의 10~25%에 대해서 상호 신뢰도 검사를 시행하므로 [22], 본 연구에서는 18개의 사진을 5명의 코더들이 개별로 측정하여 Holsti 방법[23]으로 코더 간 신뢰도를 측정하였으며 평균 96.7%였다.

$$\text{신뢰도계수} = \frac{5M}{N1 + N2 + N3 + N4 + N5}$$

N1, N2, N3, N4, N5 =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코더가 각각 코딩한 전체 수

M = 5명의 코더 간의 일치한 코딩 수

4.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SPSS Statistics 23.0을 이용하여 간호사관련 사진의 외적특성, 사진장면, 사진출처를 실수, 백분율로 분석하였으며, 사진 장면에 따른 외적특성과 사진출처의 차이는 χ^2 test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사진은 총 184개이며, 이중 간호사의 외적특성은 분석단위가 사진에 등장한 인물로서 184개 사진에서 총 241명의 인물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간호사의 외적특성, 사진장면, 사진출처

간호사의 체격은 총 241명 중에서 237명(98.3%)이 보통이하의 체격으로 묘사되고 있었으며, 4명(1.7%)은 뚱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용모는 '청결하다'가 235명(97.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간호사의 의상은 '바지를 입고 있는 간호사가 103명(42.7%)으로 가장 많았으며, '치마를 입고 있는 간호사는 37명(15.4%)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표정은 '미소'가 130명(53.9%), '무표정'이 29명(36.9%)으로 나타났다. 간호사 캡을 착용하고 있는 경우는 51명(21.2%)이며, 캡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는

150명(78.8%)이었다. 간호사가 여성인 경우는 212명(88.0%)로 가장 많았으며, 남성은 29명(12.0%)으로 나타났다.

사진장면은 간호사의 '비전문성'을 보여주는 사진이 79건(42.9%)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간호활동' 69건(37.5%), '선정성' 36건(19.6%)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출처는 '신문기사 및 뉴스'가 67건(36.4%)으로 가장 많았으며, '커뮤니티'는 53건(28.8%), 기타 44건(23.8%), 병원 15건(9.2%), 소셜 네트워크서비스 5건(2.7%)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2. 간호활동 장면

총 69건의 '간호활동'에 대한 사진을 '전문적 역할'과 '단순 역할'로 분류한 결과, '전문적 역할'이 56건(81.2%), 단순역할은 13건(18.8%)으로 나타났다. '전문적 역할'에서 '전문적 간호술 수행', '교육자로서의 역할'이 각각 25건(44.7%), 12건(21.4%)으로 가장 많았다(Table 2).

Table 1. Appearance Characteristics, Scene, and Source of Nurse Photos (N=184)

Categories	Details		n (%)
Appearance characteristics (n=241)†	Build	Thin	115 (47.7)
		Normal	122 (50.6)
		Fat	4 (1.7)
	Appearance	Tidy	235 (97.5)
		Untidy	6 (2.5)
	Attire	Skirt	37 (15.4)
		Pants	103 (42.7)
		Others	101 (41.9)
	A facial expression	Smile	130 (53.9)
		Expressionless	89 (36.9)
Others		22 (9.1)	
Nurse's cap	Yes	51 (21.2)	
	No	190 (78.8)	
Sex	Female	212 (88.0)	
	Male	29 (12.0)	
Scene	Nursing activity	69 (37.5)	
	Non-professional	79 (42.9)	
	Sexually attractive	36 (19.6)	
Source	Newspaper and news	67 (36.4)	
	Community	53 (28.8)	
	Social network services	5 (2.7)	
	Hospital	15 (8.2)	
	Nursing association	0 (0.0)	
	Others	44 (23.9)	

†The total number of characters in 184 photographs

3. 간호사의 외적특성과 사진출처에 따른 사진장면

간호사의 외적특성에 따른 사진장면은 '체격', '용모', '의상', '표정', '캡착용',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간호사의 체격에 따른 사진장면의 차이는 체격이 뚱뚱한 경우는 '간호활동' 장면(3건, 75%)에서 가장 많았으며, 체격이 날씬하고 보통인 경우는 '비전문성' 사진에서 많았다. '선정성' 사진은 총 36건 중 35건이 날씬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48.40, p<.001$). 의상의 경우, 바지를 입고 있는 사진은 '간호활동' 사진(56건, 54.4%)에서 가장 많았으며, 치마는 '비전문성' 사진(23건, 62.2%)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39.96, p<.001$). 표정에서 '무표정'은 '간호활동' 사진이 59건(66.3%)로 가장 많았으며, '미소는 '비전문성' 사진이 82건(63.1%)으로 가장 많았다. '기타' 표정은 '선정성의 신문'에서 가장 많았다($\chi^2=39.96, p<.001$). 간호사 캡이 등장한 사진은 '선정성' 사진이 31건(60.8%)으로 가장 많았으며, 캡이 없는 사진은 '간호활동' 사진 95건(50.0%), '비전문성' 사진 90건(47.4%)으로 나타났으며, 선정성은 5건(2.6%)으로 나타났($\chi^2=113.54, p<.001$). 남자간호사는 '간호활동'(12건, 41.4%), '비전문성'(17건, 58.6%) 사진에서만 나타났으며, '선정성' 사진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chi^2=7.63, p=.021$).

사진출처에 따른 사진장면의 차이를 살펴보면 '신문기사 및 뉴스'와 '커뮤니티'는 '간호활동' 장면이 각각 29건(43.3%), 23건(43.3%)이었으며, '비전문성'도 26건(38.8%), 24건(45.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선정성'은 12건(17.9%), 6건(11.3%)로 나타났다($\chi^2=18.14, p=.013$).

Table 2. Nursing Activities in Photographic Scene (N=69)

Categories	n (%)
Professional role	56 (81.2)
Professional nursing practice	25 (44.7)
Educators	12 (21.4)
Research and academic activities	1 (1.8)
Conferences/group meeting	6 (10.7)
Others	12 (21.4)
Simple role	13 (18.8)
Physician assist	1 (7.7)
Transferring patients	2 (15.4)
Ward rounding	1 (7.7)
Bedding and surrounding arrangement	0 (0.0)
Carrying trays/pushing carts	4 (30.8)
Others	5 (38.4)

Table 3. Appearance Characteristics and Source according to Photographic Scene

(N=184)

Categories	Details	Photographic scene, n(%)			χ^2 (p)‡	
		Nursing activity	Non-professional	Sexually attractive		
Appearance characteristics (n=241)†	Build	Thin	38 (33.0)	42 (36.5)	35 (30.4)	48.40 (<.001)
		Normal	56 (45.9)	65 (53.3)	1 (0.8)	
		Fat	3 (75.0)	1 (25.0)	0 (0.0)	
	Appearance	Tidy	95 (40.4)	106 (45.1)	34 (14.5)	1.83 (.379)
		Untidy	2 (33.3)	2 (33.3)	2 (33.3)	
	Attire	Skirt	4 (10.8)	23 (62.2)	10 (27.0)	38.96 (<.001)
		Pants	56 (54.4)	44 (42.7)	3 (2.9)	
		Others	37 (40.7)	41 (40.6)	23 (22.8)	
	A facial expression	Smile	35 (26.9)	82 (63.1)	13 (10.0)	68.52 (<.001)
		Expressionless	59 (66.3)	21 (23.6)	9 (10.1)	
		Others	3 (13.6)	5 (22.7)	14 (63.6)	
	Nurse's cap	Yes	2 (3.9)	18 (35.3)	31 (60.8)	113.54 (<.001)
No		95 (50.0)	90 (47.4)	5 (2.6)		
Sex	Female	85 (40.1)	91 (42.9)	36 (17.0)	7.63 (.021)	
	Male	12 (41.4)	17 (58.6)	0 (0.0)		
Source	Newspaper and news	29 (43.3)	26 (38.8)	12 (17.9)	18.14 (.013)	
	Community	23 (43.4)	24 (45.3)	6 (11.3)		
	Social network services	1 (20.0)	3 (60.0)	1 (20.0)		
	Hospital	6 (40.0)	9 (60.0)	0 (0.0)		
	Others	10 (22.7)	17 (38.6)	17 (38.6)		

† The total number of characters in 184 photographs

‡ Fisher's exact test

논 의

본 연구는 인터넷 사진에서 간호사의 외적특성, 간호사 활동, 사진출처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통해 간호사의 이미지 제고 및 향상 전략에 기여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인터넷 사진에 나타난 간호사의 외적특성은 대부분 날씬하거나 보통의 체격, 청결한 용모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내 의학드라마에 등장한 간호사 이미지를 연구한 김정은 등의 연구에서도 간호사의 대부분이 마른 체형과 단정한 의상을 입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었다[21]. 1990년대 간호사 이미지 연구에서도 사람들은 간호사를 깨끗하고 단정한 이미지로 인식하고 있었는데[6], 이러한 간호사에 대한 청결하고 단정한 이미지는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 간호사의 의상은 치마보다 바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복은 과거 흰색 원피스에서 1970년대 후반 미국에서 바지를 포함한 간편복이 시작되면서 바지가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었고[24], 우리나라도 1990년대 이후 복장의 탈규범화가 이루어져 복장이 다양해졌으며, 캡이 사라지고 바지 착용이

증가하였다[25]. 더욱이 현재 실제 간호사들은 긴박한 의료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치마보다는 바지를 많이 선호하고 있어, 바지착용이 많은 본 연구결과는 현재 간호사의 모습을 잘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진에 등장한 간호사의 약 20%는 간호사 캡을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어린이 동화책에 나타난 간호사 이미지 연구에서도 총 30권의 책 중 11권에서 캡을 착용한 간호사가 등장하였으며 이중 실제 캡을 착용하였던 1950~1960년대 3권의 책을 제외한 나머지는 2000년대 이후에 발간된 책들이었다[12]. 일반적으로 간호사의 전통적인 상징으로 간호사 캡과 주사기가 연상되어 왔으며 간호사를 표현하거나 묘사될 때 이런 것들이 종종 이용되어 왔다. 또한 일부 학자들은 간호사 캡에 대하여 병원의 다른 의료진들로부터 간호사를 구별할 수 있는 확실한 정체성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26]. 그러나 현재는 위생의 문제, 남자간호사의 증가, 간호의 전문직 발전으로 인해 캡을 착용하지 않고 있으며[27], 우리나라도 대부분 캡을 착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진이나 동화책에서 캡을 착용한 간호사가 묘사되고 있는 것은 간호사에 대한 과거의 고정관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현재의 실제적인 간호사 모습이 대중매체에 나타나도록 지속적인 대중매체 모니터링과 간호교육 및 협회 등을 통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간호사 캡을 대신하여 간호사의 상징이나 정체성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남자간호사 사진은 약 10%로 남자간호사에 대한 모습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 총 남자간호사의 비율이 2017년 기준 3.37%이고 2000년대 이후 남학생 입학률의 증가로 인해 남자간호사 배출이 2017년 약 10%임을 고려할 때[28], 본 연구결과 수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최근 국내 TV드라마를 분석한 염영희 등[4]의 연구에서도 총 16편의 드라마 중에서 남자 간호사가 등장하는 드라마가 4편(25.0%)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990년대 TV드라마를 분석한 임미림[29]의 연구에서 총 153개의 간호사 역할 중 남자 간호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대조적이다. 인터넷 웹사이트에 나타난 간호사 이미지를 연구한 Kalisch 등[15]의 연구에서도 2001년보다 2004년도에 남자간호사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간호사에 대한 여성 고유의 직업이라는 고정관념이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남자간호사의 지속적인 증가는 남자간호사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 형성이나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과거 남자간호사에 대해 여성스럽거나 동성애적이라는 사회적 편견이 존재하였다[30]. 남자간호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을 위해 남자간호사들은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역할이나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진장면은 간호사의 활동이나 역할을 보여주는 '간호활동' 사진이 약 37% 이었으며, 나머지는 비전문성, 선정성 사진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활동' 사진에서 약 80%는 전문적인 기술, 교육자 등 전문적인 활동을 보여주는 사진이 대부분으로 진료보조나 침상정리 등의 단순역할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05~2007년에 발간된 병원원보 사진을 분석한 연구[15]에서 전체 사진의 약 23%가 간호사의 전문적인 활동을 보여준 사진으로 나타난 결과보다 높은 수준이다. 최근의 국내 TV드라마를 분석한 연구[4]에서는 드라마의 75%에서 간호사의 전문적인 모습이 나타난 결과를 통해 간호사의 전문적인 활동이나 역할의 모습이 과거에 비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간호사를 성적대상으로 보는 '선정성' 사진이 전체 사진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어 간호사에 대한 전문적인 이미지가 증가하고 있지만 간호사의 왜곡된 이미지도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보여주었다. 유튜브의 간호사 동영상 분석한 최근 연구에서도 간호사가 숙련된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나타

나면서 동시에 성적대상과 어리석고 무능한 모습도 나타나고 있었다[11]. 전통적으로 간호사 직업은 여성의 전유물로서, 대중매체에서 간호사를 성적대상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았다[2]. 그러나 점차 남자간호사가 증가하고 건강관리체계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간호사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 창출과 대중매체를 통한 간호사의 올바른 이미지 표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간호사 사진의 주요 출처가 신문기사 및 뉴스, 커뮤니티 웹사이트이며 간호사 관련 협회의 사진이 상대적으로 적은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간호사 관련 협회를 통한 정책적인 간호사 사진이나 이미지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인터넷 매체는 접근이 편리하고 콘텐츠의 내용과 질에 대한 제제가 어려워 간호사에 대한 선정적인 사진을 어떻게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며, 따라서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인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

간호사의 외적특성에 따른 사진장면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간호활동' 장면에는 보통이상의 체격, 바지 착용, 무표정이 많고 대부분 간호사 캡을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선정성' 장면의 사진에서는 모두 여성으로 날씬한 체격을 가졌으며 대부분 간호사 캡을 착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활동'을 보여주는 사진은 대부분 간호사의 실제 근무 중인 사진들이며, '선정성' 사진의 경우 관심 유머 등을 위해 의도적으로 설정된 사진이 주로 많은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어린이 동화책에 나타난 간호사 이미지 연구에서도 논픽션 동화책이 픽션 동화책보다 간호사의 역할을 정확하게 표현하였고, 연령, 인종, 성별 등에서 다양한 간호사들이 묘사된 것으로 나타났다[12]. 타인에 의해 의도적으로 설정된 사진에서 간호사에 대한 전형적인 고정관념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일반인들의 간호사에 대한 지식과 인식의 부족을 시사하며 추후 간호사 이미지 향상을 위한 캠페인 활동 등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인터넷에 탑재된 간호사 관련 사진에서 간호사가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구글 이미지의 간호사 사진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인터넷 사진에 나타난 간호사의 모습은 보통에서 날씬한 체격과 청결한 용모를 가지고 있었으며, 치마보다 바지를 입은 간호사가 많았다. 또한 과거에 비해 남자간호사의 등장과 간호사의 전문적인 역할 모습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반해 진료보조, 카트밀기, 환자 이송 등의 단순 역할 모습은 적게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사진에서 간호사를 성

적대상으로 묘사하는 선정적인 사진과 캡을 착용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 간호사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에 간호사에 대한 정확한 묘사와 실제 모습이 나타나도록 이미지 향상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진을 포함한 다양한 인터넷 콘텐츠에 대하여 간호사관련 협회를 통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이 필요하며, 간호사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이미지나 사진 개발을 위해 '간호사 사진 공모전' 등의 캠페인 활동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캡이나 주사기를 대신하여 변화된 간호사의 역할이나 모습을 상징할 수 있는 간호사 이미지 개발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인터넷 간호사 사진을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대중매체에 나타난 간호사의 이미지를 확인하고자 한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추후 간호사 이미지 향상을 위한 전략 및 캠페인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간호사 사진을 1곳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추출하여 내용분석을 한 연구로써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간호사 사진을 내용분석하기 위해 관련선행연구들을 기초로 분석 도구를 개발하여 사용하였고, 선행연구에서도 연구들마다 개발되어 사용된 도구가 다양하여 연구결과를 비교 해석하는데 제한이 있다. 추후 대중매체에 나타난 간호사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대중매체 콘텐츠를 분석할 수 있는 표준화된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ORCID

Park, Sunah	https://orcid.org/0000-0001-9164-997X
Baek, Minjeong	https://orcid.org/0000-0002-9361-8947
Seong, Mingyeong	https://orcid.org/0000-0002-5602-6125
Jang, Hyeji	https://orcid.org/0000-0002-8080-4687
Jeong, Minju	https://orcid.org/0000-0002-3854-405X
Heo, Juhui	https://orcid.org/0000-0001-7445-4783

REFERENCES

- Barich H, Kotler P. A framework for marketing image management. MIT Sloan Management Review. 1991;32(2):94-104.
- Cunningham A. Nursing stereotypes. Nursing Standard. 1999;13(45):46-47. <http://doi.org/10.7748/ns1999.07.13.45.46.c2653>
- Jang YE. 3,800 new male students at college of nursing last year-1.6 out of 10 students [internet]. Gunpo-si:Daehac, 2016 [cited 2018 January 2], Available from: http://www.daehac.com/html/news/exam_view.html?idx_NewsGeneral=3472
- Yom YH, Kim K, Son H, Lee JM, Jeon JH, Kim MA. An analysis of the image of nurses portrayed on Korean TV dramas.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2015;21(3):412-423.
- Kim K, Kim M, Kwon S, Kim S, Kim Y, Ryu B et al. The study of nursing image.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1999;5(1):5-28.
- Korean Nurses Association. Korea gallop, Korean nursing association nurse image survey[Internet]. Seoul: The Korean Nurse; 2006 [cited 2017 December 2]. Available from http://webzine.koreanurse.or.kr/Webzine/read_article.php?webzine_id=24&sub_cat_id=264&is_sub_no=450&article_id=683
- Kalisch B, Kalisch P. Improving the image of nursing. American Journal of Nursing. 1983;83(1):48-51.
- Shin SR. Analysis of studies on nursing image performed in Korea from 2003 to 2014.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2015;21(4): 435-446. <http://doi.org/10.1111/jkana.2015.21.4.435>
- Dracup K, Bryan-Brown CW. The invisible profession. American Journal of Critical Care. 1998;7(4):250-252.
- Lusk B. Pretty and powerless: Nurse in advertisements, 1930-1950. Research in Nursing & Health. 2000;23(3):229-236.
- Kelly J, Fealy GM, Watson R. The image of you: constructing nursing identities in YouTub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012;68(8):1804-13. <http://doi.org/10.1111/j.1365-2648.2011.05872.x>
- Carroll SM, Rosa KC. Role and image of nursing in children's literature: a qualitative media analysis. Journal of Pediatric Nursing. 2016; 31(2):141-151. <http://doi.org/10.1016/j.pedn.2015.09.009>
- Boulding K. The image: knowledge in life and society. Ann Arbor MI: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56. p. 175.
- Park S, Kwon HJ, Kim HJ. The portrayal of nurses and physicians in hospital administration journals.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2010;16(2):32-42.
- Jung MS, Kang YS. The image of nursing projected in newspap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1993;23(1):16-28.
- Pierce S, Grodal K, Smith LS, Elia-Tybol S, Miler A, Tallman C. Image of nurse on Internet greeting cards. Journal of Undergraduate Nursing Scholarship. 2002;4(1):1-13.
- E-national indicator: internet utilization [Internet]. Daejeon: Statistics Korea; 2008 [cited 2018 February 10]. Available from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46
- Hwang S. A study on the combination with legal regulation and self regulation of internet content. Korean Comparative Public Law Association. 2008;9(4):261-288.
- Fletcher AD, Bowers TA. Fundamentals of advertising research. 3rd ed. Belmont CA: Wadsworth; 1988.
- Ahn SH. Naver is popular, Daum is convenience, Google is correct[Internet]. Seoul: The PR news. 2016 [cited 2018 January 25]. Available from <http://www.the-p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486>
- Kim JE, Jung HJ, Kim HN, Son SY, An SK et al. "The image of nurses and their clinical role portrayed in Korean medical TV dramas in recent 5 years.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2013;10(2):120-132.
- R. D. Wimmer and J. R. Dominick. Mass media research. Yu J, Kim D, translator. Seoul: Nanam; 1995.
- Holsti OR. Content analysis for the social science and humanities. Reading MA: Addison-Wesley; 1969. p. 140.
- Catanzaro S. Evolution of uniforms to cater for the needs of staff

- and patients. *Nursing Management*. 2013;19(9):24-25. <http://doi.org/doi:10.7748/nm2013.01.19.9.24.s9514>
25. Kim CJ, Lee WH, Hur HK, Kim CH, Hong SK. A survey of the Image conveyed by different types of nurses' uniform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1993;23(4):631-647.
 26. Stokowski LA. What happened to the cap? The dawn of the cap [Internet]. New York: Medscape 2011 [cited 2018 January 17]. Available from: <https://www.medscape.com/viewarticle/741581>
 27. Sibbald B. Capping off an era.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 2001;164:1190-1991.
 28. Heo JY. Age of 10,000 male nurses, nurse exam passer ratio enter the first two digits [Internet]. Seoul: ChosunBiz. 2017 [cited 2018 January 2]. Available from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10/2017021002036.html
 29. Im ML. Research on contents analysis on image of nursing on television drama. *Health & Nursing*. 1995;7:64-83.
 30. Evans JA. Cautious caregivers: gender stereotypes and the sexualization of men nurses' touch.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002;40(4):441-448. <http://doi.org/10.1046/j.1365-2648.2002.02392.x>.